

한국인의 행복 격차: 집단 간 변화 추이와 관련 요인

최유석*, 김여진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Happiness Differentials in Korea: Their Changes and Related Factors

Youseok Choi*, Yojin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llym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행복 수준과 변화를 밝히고, 집단 간 행복의 격차와 관련된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만19-69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20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행복감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양한 집단 간 행복의 격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20, 30대가 40-60대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이혼, 사별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하고 있다. 교육수준, 소득수준, 사회적 지위, 자유결정 정도,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았다. 하루에 접촉하는 가족 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화할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았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행복감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지위, 자유결정 정도가 행복수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맺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복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appiness levels and their changes across different groups of Koreans. It also identifies factors related to the variations in the happiness leve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tilizes the '2013-20 Social Integration Research', which surveyed Korean adults aged 19-69.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happiness level had increased until 2018, then it has slightly decreased since 2019. Overall, the happiness differentials across groups have decreased over time. Females in their 20s and 30s and people living with their spouses are happier than their counterparts. People with a higher level of education, income, social status, free decision making and trust are happier than those with lower levels of education, income, and social status. Apart from this, people who contact family members several times a day and when they feel depressed or stressed are happier than their counterparts. Moreover,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social status and the chance to make free decisions explain the largest variations of happiness among the eleven attributes of people.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the policy implications to increase happiness and alleviate the happiness differentials across various groups.

Keywords : Happiness Differential, Well-Being, Social Policy, Welfare Policy, Social Status, Free Decision

이 논문은 2021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2103-001), 2020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NRF-2020S1A5A2A0304527512)입니다. 2019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 : Youseok Choi(Hallym University)

email: yschoi@hallym.ac.kr

Received October 28,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Revised November 29,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1. 서론

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는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점차 차단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13년 37.4%에서 2020년 45.2%로 증가하였다[1]. 그러나 한국인은 여전히 높은 지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열망과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2].

일자리 관계만 하더라도 안정적인 정규직과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가 고착되는 것이 현실이다[3].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20년 8월 기준 171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323만원의 53.0% 수준이다[3]. 이 수치는 2013년 56.2%에서 더 낮아진 것이다[3]. 비정규직의 낮은 지위가 유지, 존속되는 상황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4], 노인은 외로움과 빈곤의 늪에 빠져있다[5]. 중장년층은 자녀교육비와 부모부양 부담에 허덕인다[6].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있는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간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가? 최근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인의 행복감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행복의 양상과 변화를 추적하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행복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국민의 삶의 조건이 어떠한지,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활발한 정책 토론을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을 갖는다[7]. 그러나 생활만족 또는 우울감 등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가 있지만, 한국인의 행복을 다양한 측면에서 시계열적으로 폭넓게 조망한 연구는 의외로 부족하다[8]. 특정 집단(예: 청년,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등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해당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축하여 연구한 경우는 부족한 실정이다.

언론에서도 OECD에서 매년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할 때만 잠시 우리 국민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한국인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 수준은 어떠한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집단 간 행복격차 또는 행복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지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마저도 깊이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8]. 소득격차 못지 않게 행복격차 또는 행

복 불평등은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9]. 정책당국자와 사회정책 연구자는 집단 간 행복 격차의 변화를 추적하고 어떠한 정책을 통해 행복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8]. 이 연구는 행복수준의 변화를 탐색하고 집단 간 행복의 차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어떠한 요인이 행복격차를 빚어내는지를 밝힘으로써 행복연구자와 정책당국자들이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한국 성인의 평균적인 행복수준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2〉 다양한 집단 간 행복격차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3〉 행복 수준과 관련을 맺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인의 행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2013-20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행복의 양상과 수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성별, 연령, 소득, 사회적 지위 등 개인의 인구학적, 사회적 관계 특성별로 다양한 집단 간 행복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감소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어떠한 요인이 행복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마지막 5장 논의와 결론에서는 주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토론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2.1 행복수준과 격차에 관한 연구

헌법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행복수준이 어떠한지, 국민들은 더 행복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인의 행복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행복 또는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청소년, 여성, 노인 등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이 행복 또는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관련을 맺는지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10-13]. 따라서 한국인 전체를 포괄한 대표적인 표본을 활용하여 행복수준의 변화와 집단 간 격차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드물었다[8].

한국인 전체를 포함한 일부 연구의 경우에도 한국인의 행복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한국인의 행복은 어떠한지 최근 동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8,14]. 이 연구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수준이 2013-20년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의 행복수준과 양상은 어떠한지를 밝힌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특정 집단에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인구학적 집단 간의 격차를 밝히려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예를 들어 노인 등 특정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관련된 요인을 엄밀하게 규명하는데 효과적이었다[13]. 그러나 다양한 연령집단 간의 행복격차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성별, 소득 등 특정 변수에 한정하여 집단 간 비교(예: 남성/여성, 저소득/고소득)에 관심을 둔 연구의 경우에도 다양한 인구학적 집단 간의 행복 격차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못한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인구집단 별로 행복의 수준이 어떠한지, 집단 간 행복의 격차가 어떠한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행복 수준의 평균적인 증가가 모든 집단에게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감의 증가가 특정 집단에 집중된 것인지, 행복 증진에서 배제된 집단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불행한 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 특성에 따라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사회적 지위 등 11가지 특성 별로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로 행복 수준이 어떠한지, 집단 간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어떠한 요인이 행복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2 집단 간 행복 격차

이 절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룬 11가지 특성으로 구분한 집단 간 행복 격차에 대한 논의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1가지 특성은 크게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관계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소득 등 5가지 변수는 인구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변수이다. 또한 각종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간 차별적 효과를 밝히기 위해 빈번하게 활용하는 변수이다. 먼저 통상적

인 인구집단 구분 범주를 활용하여 집단 간 행복격차를 살펴보았다.

한편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개인이 타인과 맺는 관계적 특성도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16].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관계적 특성으로 사회적 지위, 자유결정 정도, 접촉하는 가족 수/비가족 수, 우울할 때 대화할 사람 수, 사람에게 대한 신뢰 등 6가지 특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집단 간 행복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래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관계적 특성의 순서로 집단 간 행복격차에 관한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에 따른 행복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하거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14,17-21].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행복감, 우울감 등 정서적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령에 따른 행복 차이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22]. 서구에서는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하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거나[23], 청년기의 높은 행복감이 중년기에 감소하다가 노년기에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19,21,29]. 최근 145개국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U자 형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29].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의 행복감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9,22,24]. 서구와 달리, 한국 노인이 낮은 행복감을 경험하는 이유는 높은 노인빈곤율에서 비롯된다[22,25]. 은퇴후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이 적고 급여수준이 낮아서 편안한 노후의 삶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25].

다른 이유로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는 사회활동 참여, 가족관계 만족도, 성격특성 등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낮거나 다른 점도 고려할 수 있다[19]. 예를 들어, 노인의 사회활동참여 중 자원봉사참여 수준이 미국은 23.8%, 영국은 53.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26]. 반면에 한국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율은 3.9%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 노인이 사회참여를 통한 성공적 노화를 누릴 기회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26].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증가한 독거노인의 낮은 삶의 의미 수준[27], 낮은 사회적 지지 수준[24]도 한국 노인의 낮은 행복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결혼상태 별로 행복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혼 집단이 미혼, 이혼, 사별집단에 비해 행복수준이 높게

나타났다[30,31]. 배우자로부터의 지지, 자녀관계에서 경험하는 행복 등 가족관계에서 더 많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21,30]. 고학력일수록 높은 소득을 얻고, 직장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통제력을 가진 직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행복수준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게 나타난다[17,18,32].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원하는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 교육, 여가활동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관계적 특성 중에서 먼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도 행복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21,33].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질수록 자율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사회적 지위는 높은 직업적 지위, 학력, 소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유결정의 정도도 행복과 관련을 맺을 것이다. 직업활동을 비롯한 인생의 과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34]. 자유결정의 정도는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앞서 소득, 사회적 지위, 교육수준이 행복과 관련을 맺는 과정을 매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소득은 근로와 여가활동에서 선택의 자유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소득이 자유결정의 여지를 증가시켜 주고, 이는 더 높은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인이 타인과 맺는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도 행복감과 관련을 맺을 것이다. 가족, 친구와의 접촉 및 교류가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을 수 있다[15]. 가족, 친구 등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부터의 도구적, 정서적 지지가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30,35].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뿐만 아니라 질적인 특성도 중요하다. 정서적 교류를 맺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0].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화하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다. 행복감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정서적 관계를 맺으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뢰도 행복감과 깊은 관련을 맺을 것이다[30,34,35]. 신뢰의 영역을 사적 신뢰와 사회적 신뢰로 구분하면, 개인 수준의 행복감과 관련하여 두 가지 형태의 신뢰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30].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이 나를 속일 것이라는

의심과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의 경우에도 공적인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는 공적인 업무처리에서의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만족 또는 행복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구학적 속성과 사회관계적 속성에 따라 구분한 다양한 집단 간 행복수준이 어떠한지, 집단 간 행복감의 차이가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감소하였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한국인의 행복 수준과 집단 간 행복의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2013-20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만19-69세 성인을 대상으로 행복, 사회통합, 공정성 등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1]. 조사시점은 9월 1일 기준이며, 2개월(9/1-10/31) 동안 진행되었다. 응답자 수는 2013년 5,000명, 2014년 7,500명, 2015년 7,700명, 2016-19년 각 8,000명, 2020년 8,339명이었다[1].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삶의 질과 관련한 공식적인 국가지표 자료로 활용되며, OECD의 삶의 질 조사에서 한국 통계 자료로 활용된다[1].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에서 유의할 점은 2013-19년 자료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이 표본에 포함되지 않아서 전체 성인 인구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조사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이 표본에 포함되었다[1]. 2013-2020 기간 동안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서 69세 이하 성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후에 살펴 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30대를 정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한다. 따라서 70대 이상 노인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행복도를 다소 높게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다양한 차원의 행복지표를 활용하여 국민 행복의 변화를 파악하고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이다[1].

3.2 변수의 측정

행복과 관련하여 이 조사에서는 행복감, 생활만족도,

근심/걱정, 우울감,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 등 5가지 항목의 질문을 활용하였다[1]. 이 항목들은 OECD에서 권장하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는 핵심지표이다[36,37].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삶의 만족도), 유대모니아적 웰빙(일의 가치), 정서적 감정(행복감, 근심/걱정, 우울감)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37].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5개 문항을 통해 행복의 다차원적 측면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각 질문은 11점(0-10)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의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5개 질문은 OECD의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와 동일하여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37].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집단 간 행복감 차이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사회적 지위, 자유결정, 사회적 관계(가족, 비가족과의 접촉),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화할 사람, 사람에 대한 신뢰 등 11가지 특성에 따라서 집단 간 행복감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연령은 10세 단위로 구분하였고, 결혼상태는 미혼, 기혼, 이혼(별거 포함), 사별 등 4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중졸, 고졸, 대학 재학 이상 등 4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가구소득은 세전 총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여 100만원 미만, 100만원대,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대, 500만원대, 600만원 이상 등 7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지위와 자유결정 정도는 0-10점의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숫자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와 자유결정의 정도가 높도록 구성하였다. 하룻동안 접촉하는 가족/친척 수, 비가족 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화할 사람은 없음,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등 5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숫자가 클수록 높은 신뢰를 나타낸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유무, 건강상태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건강상태는 5점 척도로 숫자가 클수록 건강하도록 구성하였다.

3.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먼저 2013-2020년 기간 동안 한국 성인의 행복 수준과 행복 격차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인의 행복감, 생활만족도, 걱정/근심, 우울감, 일에 대한 태도 등 5가지 측면에서 시계열 변화가 어떠한지를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관계적 특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간 행복감의 격차를 추적하였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특성이 행복감과 관련성을 맺는지를 밝히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은 4가지 모델을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모델1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 근로유무, 가구소득 등 7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건강상태와 근로유무는 행복격차 시계열 분석에서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행복 수준과 관련을 맺는 요인[21]이기 때문에 회귀분석에 추가로 투입하였다.

모델2는 모델1에 활용한 변수에 사회적 지위와 자유결정 정도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모델3은 접촉하는 가족 수, 비가족 수를 추가로 투입하고, 모델4에서는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화할 사람 수,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를 투입하였다. 순차적으로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특정 변수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4. 행복 수준과 행복 격차의 변화

4.1 행복 수준의 변화

Fig. 1은 행복감 등 5가지 지표의 변화를 2013-2020년 기간 동안 집계한 결과이다. 행복감과 생활만족도, 일의 가치 등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향상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행복감은 2013년 6.3점에서 2018년 6.6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부터 감소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6.5점 수준이었다. 생활만족도는 행복감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생활만족도는 2013년 5.7점에서 2018년 6.1점까지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가 2020년에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1998-2017년 기간 동안 생활만족도를 추적한 조사에서 2017년까지 생활만족도가 증가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8].

국민들의 근심/걱정, 우울감은 점차 감소하다가 2018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근심/걱정은 2013년 4.4점에서 2018년 3.7점까지 감소하였다가 2020년 3.9점으로 증가하였다. 우울감도 2013년 3.4점에서 2018년 2.9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3.2점으로 증가하였다.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가치에 대한 평가는 2013년 6.2에서 2018년 6.3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2020년에 6.1로 감소하였다. 안정된 좋은 일자리의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일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낮게 인식하는 배경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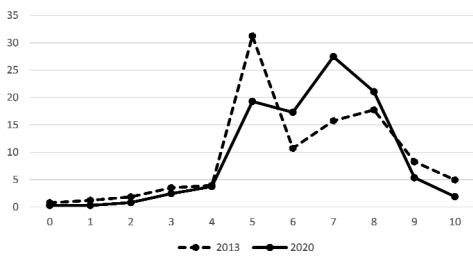


Fig. 1. Happiness Related Indicators 20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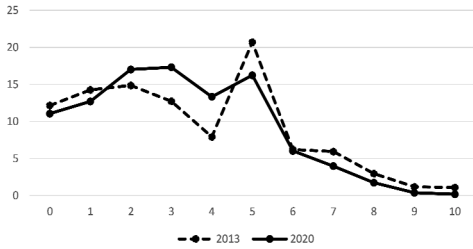
행복지표 분석결과는 전체 성인인구가 아니라 19-69세 연령집단이 모집단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0대의 행복수준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으며, 70대 이상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70세 이상 연령집단이 표본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이 자료를 활용한 한국 성인의 행복 수준은 다소 높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3-19년 자료와는 달리 2020년 자료에는 70대 이상 표본도 포함되어 있다. 70대 이상의 행복감 평균은 6.0점으로 60대 행복감 6.2점에 비해 더 낮았다. 한국사회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의 평균 행복수준은 쉽게 향상되기 어려울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체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행복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더 면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분석기간 동안 한국 성인의 행복감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다가 2018년 이후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집단간 행복감의 격차와 그 변화는 어떠한가? 불행한 사람들은 해당 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고, 행복한 사람들만 더 행복해진 것은 아닐까? 즉 행복의 양극화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분석기간 동안 누가 더 행복해졌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행복감, 우울감 분포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Fig. 2는 두 기간 동안의 변화가 행복감, 우울감 분포의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행복감 분포(0-10)에서는 주로 보통(5)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감소와 행복(6-8)에 응답한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우울감 분포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낮은 수준의 우울감(1-3)에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보통(5)을 비롯해서 높은 수준의 우울감(6-8)에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2013-20년 기간 동안 중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6-8)의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불행하거나 우울하다고 느낀 사람들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지난 8년 동안 한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더 행복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인해 국민들이 더 행복해진 것일까? 국민소득이 꾸준히 증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 연구에서는 행복 증진의 원인에 대한 엄밀한 탐색보다는 집단별 행복 수준과 격차가 어떠한지를 주로 탐색할 것이다. 누가 더 행복한지 혹은 불행한지 그 실상을 밝히는 것이 우선적인 작업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패널자료를 이용한 행복 증진 원인에 대한 엄밀한 탐구는 차후에 수행할 것이다.



(a) Distribution of Happiness 2013-20



(b) Distribution of Depression 2013-20

Fig. 2. Distributions of Happiness and Depression 2013-20

4.2 집단 간 행복 격차의 변화

행복은 집단 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모든 집단에서 행복이 증진되었을까? 예를 들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행복 수준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가 아니면 증가하는가? 아래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성별, 연령, 소득집단, 결혼상태,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집단 별로 행복수준의 차이는 어떠한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지면 관계상 아래에서는 행복지표 중에서 행복감을 중심으로 집단 간 차이와 시계열 변화를 주로 살펴 볼 것이다.

4.2.1 성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하고 있다(Fig. 3). 이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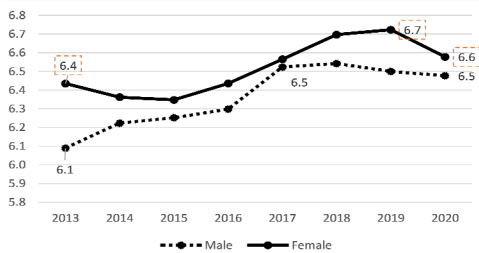


Fig. 3. Happiness by Gender 2013-20

과이다[30,38,39]. 남녀 간 행복의 격차는 2017년까지 수렴하다가, 2018-19년에 차이가 벌어졌다가 2020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행복수준이 낮은 이유는 남성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의 행복감이나 우울감 등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성향에서 일부 기인할 수 있다.

4.2.2 연령

Fig. 4에서 보듯이 연령에 따라 행복감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20,30대의 행복도가 가장 높았으며, 60대가 가장 낮았다. 60대 노인의 낮은 행복은 은퇴 이후의 소득 감소, 건강 악화,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각 연령대 별로 행복감은 대체로 증가하다가 2018-19년을 전후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까지의 결과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연령별 생활만족도 평균의 변화와 유사한 결과이다[8].

연령집단 간 행복감의 격차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였다. 2013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20대와 60대 간의 행복감 격차가 0.54인 반면, 2018년에는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연령집단 간의 차이가 0.25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0.38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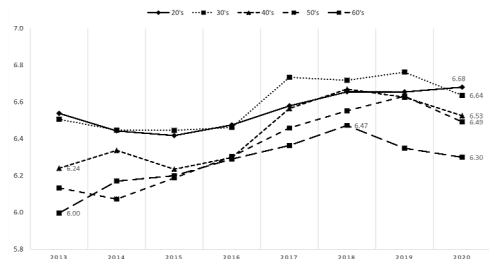


Fig. 4. Happiness by Aging Groups 2013-20

4.2.3 결혼상태

결혼상태 별로 살펴보면,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가장 행복했다(Fig. 5). 반면에 이혼한 집단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 기존 연구에서도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30,38]. 행복감은 일상적인 경험이다. 유배우자 집단은 배우자의 지지, 자녀와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이혼집단에 비해 더 많기 때문이다[17,40]. 각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행복감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이후 사별집단의 행복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집단 간 행복 격차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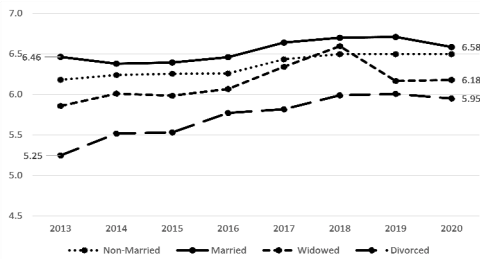


Fig. 5. Happiness by Marital Status 2013-20

4.2.4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Fig. 6). 이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30,39]. 대졸 이상 학력자는 2020년에 행복감이 약 6.7인 반면, 초졸 이하 집단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력 간 행복감 격차의 일부는 학력별 소득 격차 또는 고소득 직업에의 접근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의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자율적인 전문직 직종 등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력별 행복 격차의 일부는 응답자의 연령대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으며, 낮은 연령대일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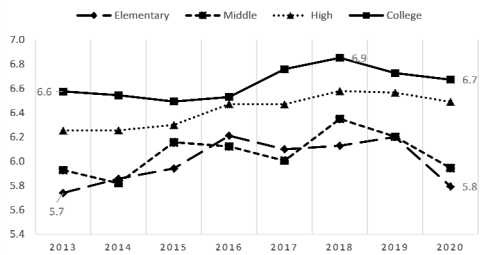


Fig. 6. Happiness by Education 2013-20

교육수준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고학력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저학력자의 비율은 감소하였다(별도 분석). 예를 들어 2013년 대졸 비율은 34.7%에서 2020년 47.8%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초졸 비율은 10.1%에서 3.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층 대학진학률의 증가와 저학력일 가능성이 높은 70대 이상 노인층이 조사에서 제외된 상황이 작용한 결과이다. 고학력일수록 행복한 점을 고려하면 2018년까지 행복감의 증가는 고학력자 비중의 증가와 이들의 행복감 증가에서 기인할 수 있다.

4.2.5 소득

가구소득은 세전 소득을 명목가치로 측정하여, 월평균 100만원 미만, 100-500만원, 500만원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였다(Fig. 7). 이는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30,38].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소득집단에 따른 행복 격차는 축소되다가 2020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행복감은 변화가 없는 반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행복감 감소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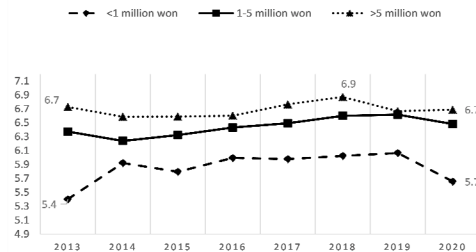


Fig. 7. Happiness by Income Groups 2013-20

소득분포의 변화를 보면 분석대상 기간 동안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비율은 2013년 13.7%에서 2020년 3.5%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11.0%에서 35.4%로 급증하였다(별도 분석). 이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기초생활보장의 확대,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의해 저소득층의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70대 이상 노인이 표본에서 제외된 것에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전체 국민의 행복감은 500만원대 이상 중 고소득층 비중의 증가와 이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2.6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았다(Fig. 8). 이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30,39]. 다른 특성에 비해 사회적 지위에 따른 행복감의 격차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위집단(8-10)의 행복감은 7.5인 반면, 하위집단(0-2)의 행복감은 5.0이었다. 2013년에 비

해 사회적 지위에 따른 집단 간의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에는 사회적 지위 별 격차가 가장 낮았다. 하위집단의 행복감은 다소 상승한 반면, 상위 집단의 행복감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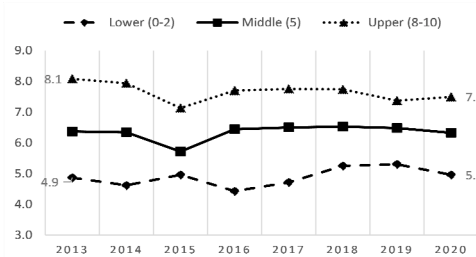


Fig. 8. Happiness by Social Status 2013-20

4.2.7 자유결정

Fig. 9에서 보듯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결정할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38]. 자유결정이 없는 집단(0)과 최대한의 자유결정 집단(10) 간의 행복도는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2020년에 자유결정 하위집단(0-2점)의 행복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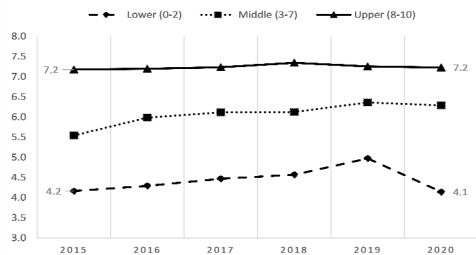


Fig. 9. Happiness by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4.2.8 사회적 관계

개인이 맺는 사회적 관계도 행복과 관련을 맺는다[41-44]. 하루 동안 접촉하는 가족(친척 포함)과 비가족의 숫자와 행복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Fig. 10에서 보듯이 접촉하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행복하였다. 2013-19년 기간 동안 가족과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행복도가 증가했으며,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족과 접촉이 없는 이들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어떠한 이유로 행복도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지를 좀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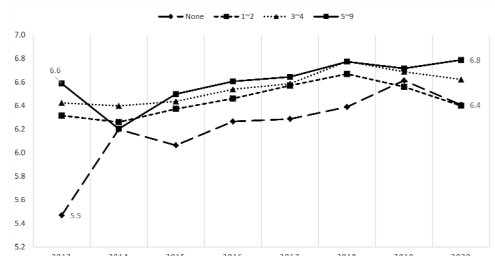


Fig. 10. Happiness by Number of Family Members with Whom Respondents Contact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접촉에서도 접촉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였다(Fig. 11). 2020년 기준, 비가족과 접촉이 없는 경우의 행복도는 5.9점으로 가족과의 접촉이 없는 경우의 행복도 6.4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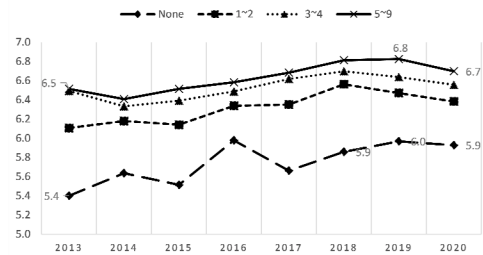


Fig. 11. Happiness by Number of Non-Family Members with Whom Respondents Contact

하루에 접촉하는 비가족의 경우 20명을 넘으면 오히려 행복감이 감소하였다(별도 분석결과). 20명이 넘게 되면 접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관계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접촉하는 가족 수와 비가족 수는 개인이 맺는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특성 중에서 정서적 관계를 맺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수와 행복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Fig. 12).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와 유사하였다[30]. 2013-20년 기간 동안 대화할 사람의 숫자 별 행복감의 격차는 감소하였다.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행복감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우울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도 행복감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연구에서 좀더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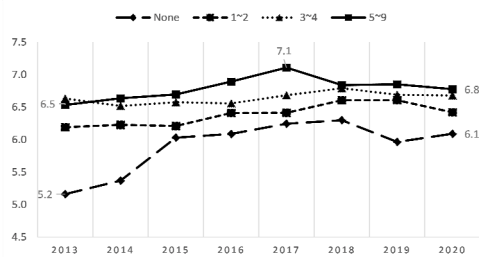


Fig. 12. Happiness by Number of People Respondents can talk to when they are stressed

4.2.9 사람에 대한 신뢰

Fig. 13에서 보듯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30,38]. 2020년 기준, 타인을 매우 신뢰하는 경우 행복감이 7.0점인 반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 집단은 6.1점이었다. 불행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람을 더 불신하고 의심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매우 신뢰하는 집단을 제외한 다른 3개 집단에서 행복감이 일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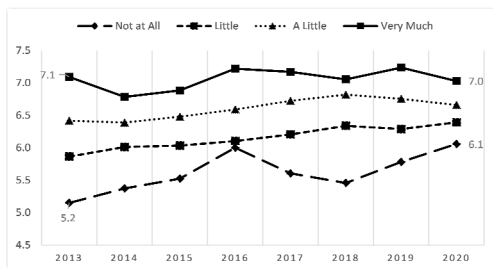


Fig. 13. Happiness by Trust on People 2013-2020

분석자료에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뿐만 아니라, 특정 대상자(예: 가족, 친구)와 기관(예: 국회, 정부, 언론)에 대한 신뢰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과 기관에 대한 신뢰와 행복 간의 관련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4.3 행복과 관련된 요인

이 연구에서는 행복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최근인 2020년에 조사한 8,339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델1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 인구학적 요인과 행복 간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 여성에 비

해 남성의 행복감이 낮았다. 60대에 비해 40대와 50대의 행복감이 낮았다. 이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 이유는 교육수준,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앞서 연령별 행복격차 시계열분석에서 60대는 가장 낮은 행복도를 보였다. 60대의 낮은 행복도는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가구소득, 건강상태에서 비롯될 수 있다.

교육수준 별로는 초졸에 비해 고졸, 대졸 이상 응답자의 행복감이 높았다. 미혼집단에 비해 기혼, 사별 집단이 더 행복하였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행복하였으며,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집단에 비해 300만원 이상 집단의 행복감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인구학적 속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29,30,35,38,39).

모델2는 모델1에 활용한 변수에 추가하여 사회적 지위와 자유결정 정도와 행복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자유결정 정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비근로 집단에 비해 근로집단의 행복감이 낮았다. 모델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교육수준과 소득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두 변수는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행복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교육과 소득은 직업과 함께 사회적 지위의 하위 범주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소득의 효과가 사회적 지위의 포괄적인 효과에 흡수되어 세 변수가 동시에 회귀분석에 투입되면 교육과 소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주관적 계층의식이 투입된 경우 소득의 영향이 감소하였다. 자유결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도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6,38,42,45].

모델3에서는 모델2에 하루에 접촉하는 가족수와 비가족수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와 행복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접촉하는 가족의 숫자는 행복감과 관련이 없었다. 반면에 가족이 아닌 사람을 한 명도 접촉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최소한 1명이라도 접촉하는 집단의 행복감이 높았다. 타인과 단절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일상적으로 맺는 사람들이 이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와 행복 간의 관련성을 좀더 면밀히 탐색하기 위해 모델4에서는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받을 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의 수'와 '사람에 대한 신뢰' 변수를 추가하였다.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

비해 최소한 1명 이상인 집단의 행복감이 높았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이 행복감도 높았다. 앞서 모델 3에서 행복감과 관련을 맺었던 접촉하는 비가족주의 경우, 5-9명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비가족원과의 접촉이 대화를 통해 행복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가족원과의 접촉

자체보다는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지를 받음으로써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모델4의 경우에도 여전히 남성, 20대, 혼인상태, 건강상태, 근로유무, 사회적 지위, 자유결정은 행복감과 관련을 맺었다.

Table 1. Regression Results: Factors Related with Happiness

(n=8,339)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e.		b	s.e.		b	s.e.		b	s.e.
Constant		3.890	0.117	**	1.605	0.114	**	1.546	0.126	**	1.152	0.142
Gender(Female)	Male	-0.140	0.035	**	-0.181	0.031	**	-0.180	0.031	**	-0.176	0.031
Age (Over 60's)	20's	0.089	0.086		0.295	0.076	**	0.292	0.076	**	0.308	0.076
	30's	-0.133	0.072		0.050	0.064		0.055	0.064		0.074	0.064
	40's	-0.193	0.063	**	-0.073	0.056		-0.069	0.056		-0.057	0.056
	50's	-0.146	0.058	*	-0.038	0.052		-0.034	0.052		-0.022	0.052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0.028	0.082		-0.027	0.072		-0.030	0.073		-0.022	0.072
	High School	0.189	0.075	*	0.025	0.066		0.019	0.066		0.017	0.066
	College and Over	0.295	0.082	**	0.029	0.073		0.020	0.073		0.010	0.073
Marital Status (Non-married)	Married	0.410	0.062	**	0.334	0.055	**	0.343	0.055	**	0.339	0.055
	Divorced	0.111	0.108		0.064	0.095		0.075	0.095		0.077	0.095
	Widowed	0.369	0.096	**	0.206	0.085	**	0.214	0.085	*	0.199	0.085
Heath Status		0.578	0.024	**	0.349	0.022	**	0.339	0.022	**	0.335	0.022
Working (Non-Working)		-0.063	0.041		-0.118	0.036	**	-0.129	0.036	**	-0.134	0.036
Household Income (< 1 million won)	1 - < 2 million	0.001	0.082		-0.073	0.073		-0.072	0.073		-0.071	0.073
	2 - < 3 million	0.130	0.083		0.035	0.073		0.029	0.073		0.025	0.073
	3 - < 4 million	0.235	0.084	**	0.109	0.074		0.102	0.074		0.103	0.074
	4 - < 5 million	0.211	0.087	*	0.104	0.077		0.092	0.077		0.089	0.077
	5 - < 6 million	0.205	0.089	*	0.055	0.079		0.043	0.079		0.022	0.079
	>= 600 million	0.303	0.088	**	0.129	0.078		0.115	0.078		0.097	0.078
Social Status					0.311	0.010	**	0.309	0.010	**	0.304	0.010
Freedom to Make Life Choice					0.273	0.010	**	0.271	0.010	**	0.267	0.010
Number of Contacting Family Members (None)	1-2							-0.061	0.052		-0.073	0.052
	3-4							0.004	0.055		-0.015	0.055
	5-9							0.042	0.071		0.026	0.070
	10 and Over							0.025	0.082		0.010	0.082
Number of Contacting Non-Family Members (None)	1-2							0.143	0.069	*	0.123	0.069
	3-4							0.145	0.070	*	0.110	0.070
	5-9							0.190	0.074	*	0.135	0.075
	10 and Over							0.242	0.084	**	0.159	0.086
Number of People to Whom Respondents Talk in Stress (None)	1-2										0.154	0.056
	3-4										0.212	0.060
	5-9										0.239	0.076
	10 and Over										0.512	0.153
Trust on People											0.138	0.026
R ²		0.109			0.307			0.307			0.311	

*p<0.05 **p<0.01 Reference categories in dummy variables are in parentheses

5. 논의와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수준과 격차가 어떠한지, 지난 8년간 한국인의 행복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한국인의 행복은 2013-18년 기간 동안 증가하다가 2018년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2018년 이후부터 행복감이 감소한 배경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소득불평등 심화, 정치적 갈등의 심화,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심화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사회적 지위 등 11가지 변수로 구분한 집단 간 행복감에는 차이가 있었다. 각종 집단 간 비교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행복감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소득지표보다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대적 인식이 행복과 더 큰 관련성을 맺을 수 있다. 행복감은 주관적 정서이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평가가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34,36,46]. 회귀분석 결과, 소득은 사회적 지위 또는 자기결정 정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뿐만 아니라 직업적 위신, 학력 등의 지위재를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2,36].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계층화의 심화는 국민들 간의 행복격차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과도한 계층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산층 미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에서의 일차적인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않은, 이차적인 소득재분배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으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 교육, 부동산, 지역 등에서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회사, 학교, 지역사회, 가정 등 다양한 공간에서 각종 활동과 교류를 통해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이다[17]. 이러한 공간에서의 차별과 계층화는 우리의 행복감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11,42,46,47]. 분석결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지위와 연결하여 설명하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집단의 높은 행복감은 이들의 자유결정의 정도가 높기 때문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득 증진을 통해 선택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자유(real freedom)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안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48]. 그러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근로유인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49]. 현실적으로는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을 포괄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49].

또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 가능하도록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기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회사와 학교에서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하고,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꿔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유롭게 주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후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았다. 60대의 행복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낮은 교육수준, 소득, 건강문제, 사회적 관계 약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노령층의 의료접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26].

2013-20년 기간 동안 40-60대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60대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행복감이 증가하였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확대에 의해 노인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재가복지 서비스 등 중고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확충된 것이 그 배경일 수 있다. 이러한 행복감 증가는 50,60대 고유의 코호트 효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2020년에 50,60대에 속하였다. 이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자산이 8년전 50,6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감으로 귀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코호트 효과를 비롯한 인구구성 분포의 변화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소득집단 별로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감도 높았다. 소득집단별 행복감의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3-19년 기간 동안 100만원 미만 저소득

층의 행복감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해당 기간 동안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상당히 감소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100만원대 이하 저소득층의 행복감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가 확충되면서 저소득층이 받는 각종 복지 서비스의 혜택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득은 적지만 일상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100만원대 이하 저소득층의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실질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행복감이 증가한 이유를 좀더 엄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사회적 지위집단 별 행복의 격차는 점차 감소하였다. 행복 격차의 감소는 분석대상 기간 동안 증가한 소득과 보편적 복지혜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소득 증가가 행복 불평등을 감소시켰다[50]. 해당 기간 동안의 행복의 증감과 행복격차 감소가 소득 증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서 비롯되었는지 향후 연구에서 좀더 깊이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외한 70대 이상의 성인과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행복의 양상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그 실태를 면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2019-20년 기간의 비교를 통해 코로나19의 발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2019년 이후 행복감이 감소하는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모든 국민들에게 유사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복감의 감소는 초졸이하, 100만원 이하 소득, 사회적 지위와 자유결정 하위집단(0-2), 접촉하는 가족이 없는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제공은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민의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예산제약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구학적, 관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집단 간 행복격차에 주목하였다. 행복과 관련을 맺는 요인에는 개인적 속성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또는 제도적 요인이 있다[51]. 예를 들어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도적 신뢰, 소득과 자산 불평등 등의 구조적 요인들도 개인의 행복에 공통적으로 또는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30,39].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수준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거시적 수준의 요인들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사회구조적 요인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격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 [1]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Survey on Social Integration*, 2014-2021.
- [2] J. Lee, "Social Quality, Competition, and Happiness", *Asian Review*, Vol.4, No.2, pp.3-29, 2016.
- [3] Statistics Korea,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Additional Survey by Types of Employment*, 2020.
- [4] D. Kang, et.al. Fertility Policy Reconsidered: Rebalancing the Family Life, National Council for Economi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6-01.
- [5] T. Kim, J. Lee, J. Jung, "A Study of Elderly Poverty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Multidimensional Concept of Pover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5, No.3, pp.071-102, 2015.
DOI: <http://dx.doi.org/10.15709/hsrw.2015.35.3.71>
- [6] Y. Kim, "The Double Care Burde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Middle-aged and Older Head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Sep. 2019.
- [7] J. Stiglitz, A. Sen, J. P. Fitoussi,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Paris, 2009.
- [8] J. Kim, C. Park, J. Koo, H. Lee, "An Analysis of Happiness Inequality in Ko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59, No.1, pp.115-141, 2021.
DOI: <http://dx.doi.org/10.24145/KJPA.59.1.5>
- [9] L. R. Becchetti, Massari, P. Naticchioni, The Drivers of Happiness Inequality: Suggestions for Promoting Social Cohesion, IZA Discussion Paper, No.7153, 2013.
- [10] K. S. Jeon, T. Y. Jung, "Happiness Determinants for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15, No.1, pp.133-153, 2009.
- [11] S. Han, D. Yim, M. Kang, "Precariousness and Happiness of South Korean Young Adults",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24, No.2, pp.87-126, 2017.
DOI: <http://dx.doi.org/10.17000/kspr.24.2>
- [12] E. E. Chung, A. Y. Noh,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Married Women'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26, No.1, pp.59-82, 2007.

- [13] E. Im, T. Jung, "Development of a Happiness Scale for Korean Old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29, No.3, pp.1141-1158, 2009.
- [14] H. S. Jung, S. H. Woo, "Subjective Well-Being: Its Trends and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Issue & Focus*, Vol.337, 2017.
- [15] D. J. Jang, "Why are we unhappy?", *Hwanghae Review*, Vol.91, pp. 76-90, 2016.
- [16] OECD, "Well-being today and tomorrow: An overview", in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2015.
DOI: <http://dx.doi.org/10.1787/how-life-2015-en>
- [17] J. S. Koo, E. K. Suh, "Happiness in Korea: Who is Happy and Whe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5, No.2, pp. 143-166, 2011.
DOI: <http://dx.doi.org/10.21193/kispp.2011.25.2.008>
- [18] Y. Lee, "A Study of Happiness and Related Factors among Korean Peopl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pp.20-31, Nov, 2018.
- [19] Y. Kim, Y. Choi, "Exploratory Study of Gener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5, pp.727-736,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05.727>
- [20] J. F. Helliwell, L. Richard, J. Sachs, eds., *World Happiness Report 2015*.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5.
- [21] P. Dolan, T. Reasgood, M. White,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29, pp.94-122, 2008.
DOI: <https://doi.org/10.1016/j.joep.2007.09.001>
- [22] M-H Kim, J. H. Moon, K. Seong, "A Study on Subjective Well-Being and Influential Factors across Different Life Cycles in Adulthood: Application of Alderfer's ERG Theory",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34, No.4, pp.857-875, 2014.
- [23] B. L. F. Ulloa, V. Moller, A. Sousa-Poza, "How does subjective well-being evolve with age?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Vol.6, pp.227-246, 2013.
DOI: <http://dx.doi.org/10.2139/ssrn.2250327>
- [24] S. Kim, H. Jung,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in Different Age Group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270, pp.95-104, 2019.
- [25] S. D. Chung, "Toward Age Integrated Society Where the Elderly Are Treated as Equal Social Members", *Nara Kyungjae*, Vol.366, pp. 20-21, 2021.
- [26] Y. Kim, "Factors Related to Participation of Elderly in Volunteer Activ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4, pp.218-229,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04.218>
- [27] S. I. Nam, J. See, Y. E. Jung, J. Chae, "Meaning in Life,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Old Age: A Comparative Study of Living Alone and Not Living Alone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4, No.2, pp.163-192, 2019.
- [28] J. Cullis, J. Hudson, P. Jones, "A Different Rationale for Redistribution: Pursuit of Happiness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2, pp.323-341, 2011.
DOI: <https://doi.org/10.1007/s10902-010-9190-1>
- [29] D. G. Blanchflower, "Is happiness U-shaped everywhere? Ag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145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34, pp.575-624, 2021.
DOI: <https://doi.org/10.1007/s00148-020-00797-z>
- [30] S. J. Shim,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Statistical Research*, Vol.21, No.3, pp.25-47, 2016.
- [31] S. Grover, J. F. Helliwell, "How's Life at Home? New Evidence on Marriage and the Set Point for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20, pp.373-390, 2019.
DOI: <https://doi.org/10.1007/s10902-017-9941-3>
- [32] K. J. Koo, J. Y. Im, S. K. Choi, "Determinants of Happiness: Reevaluating the Role of Income and Capabilit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8, No.2, pp.317-339, 2014.
- [33] J. Kim, "Subjective Social Class, Perceived Opportunity Equality, and Life Satisfaction of Koreans", *Kore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57, No.4, pp.97-127, 2019.
DOI: <http://dx.doi.org/10.24145/KJPA.57.4.4>
- [34] R. Layard,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Penguin Books, 2011.
- [35] E. Diener, M. E. P. Seligman,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Vol.13, No.1, pp.81-84, 2002.
DOI: <https://doi.org/10.1111/1467-9280.00415>
- [36] D. Cho, "Analytical Concept of Happiness and Its Measurement", *Labor Economic Review*, Vol.40, No.3, pp.1-29, 2017.
- [37] OECD, *OECD Guidelines of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2013.
DOI: <https://doi.org/10.1787/9789264191655-en>
- [38] Y. Choi, "Happiness Inequality in Korea: Variance of Happiness and Related Factor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41, No.4, pp.39-64, 2018.
DOI: <https://doi.org/10.31693/KJPS.2018.12.41.4.39>
- [39] Y. Choi, C. Choi, "Perceptions on the Quality of Society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Policy*, Vol.27, No.3, pp.165-199, 2020.
DOI: <https://doi.org/10.17000/kspr.27.3.202009.165>
- [40] J. S. Koo, U. C. Kim,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students and adul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12, No.2, pp.77-100, 2006.

- [41] Y. S. Park, U. C. Kim, "Factors influencing family Life-satisfaction among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14, No.4, pp.71-101, 2008.
- [42] Y. S. Park, U. C. Kim,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financial resources: How do they influence happiness among Korean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15, No.1, pp.95-132, 2009.
- [43] M. Haller, M. Hadler, "How Social Relations and Structures Can Produ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75, pp.169-216, 2006.
DOI: <https://doi.org/10.1007/s11205-004-6297-y>
- [44] P. Abott, C. Wallace, "Social Quality: A Way to Measure the Quality of Society", *Social Indicator Research*, Vol.108, pp.153-167, 2012.
DOI: <https://doi.org/10.1007/s11205-011-9871-0>
- [45] P. Verme, "Happiness, freedom and contro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71, pp.146-161.
DOI: <http://dx.doi.org/10.2139/ssrn.1499652>
- [46] A. Clark, E. Fleche, S. Layard, N. Powdthavee, G. Ward, *The Origins of Happin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Oxford, 2018.
- [47] J. Kim,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awareness of Life and Happiness Perceived by Youth Generation",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25, No.3, pp.209-245, 2018.
DOI: <https://doi.org/10.17000/kspr.25.3.201809.209>
- [48] P. V. Parijs, "Basic income" In B. Ackerman, A. Alstott, P. V. Parjs, (eds.), *Redesigning distribution*, pp.7-38, New York: Verso, P. 2006.
- [49] J. Yang, "Can Basic Income be an Alternative to Social Security?", *Korean Journal of Social Policy*, Vol.25, No.1, pp.45-70, 2018.
DOI: <https://doi.org/10.17000/kspr.25.1.201803.45>
- [50] A. E. Clark, S. Flèche, C. Senik, "Economic growth evens out happiness: evidence from six survey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62, No.3, pp.405-419, 2015.
DOI: <https://doi.org/10.1111/roiw.12190>
- [51] E. Diener, E. Suh, R. Lucas, H. Smith,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125, No.2., pp.276-302, 1999.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25.2.276>

최 유 석(Youseok Choi)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문학석사)
- 2009년 5월 :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철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복지정책, 복지행정, 비교복지국가

김 여 진(Yojin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문학사)
- 1997년 5월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MSW)
- 2007년 12월 : University of Chicago(Ph.D.)
- 2009년 9월 ~ 현재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노인복지